

세금·건보료 이어 가짜 쿠폰·국민연금... 광주서도 '환급 사기' 극성

광주서도 '환급 사기' 극성

동부경찰, 2명 검거

이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일부 돌려주겠다는 '환급 사기'는 기본이 됐다. exist도 않는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는가 하면, 가짜 환급쿠폰을 발행해 저소득 여성 등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환급사기가 극성이어서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쿠폰 환급 사기**=27일 광주 동부경찰에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힌 나모(48·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씨와 임모(40·광주시 남구 중앙동)씨, 이들은 지난 1월 중순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강모(여·23)씨의 집을 찾아가 한국교육공사 직원을 사칭했다.

한국교육공사는 실존하지 않는 기관이었지만, 강씨는 가짜 명찰을 목에 걸고 안내 전단(사진)까지 나눠주는 나씨 일행에게 깜박 속고 말았다. 안내 전단에는 한국교육공사가 최근 15조7천여원의 복지기금을 조성했으며, 전담에는 11%가 할당했다고 적혀있었다. 또 한국교육공사가 이 기금으로 발행한 면세 쿠폰 20장(시가 224만원)을 구입하면 480만원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강씨는 200장이 넘는 쿠폰을 8차례에 걸쳐 1천500

종목	한금가	관세가	한금금
20pcs	2,240,000	1,500,000	4,800,000
30pcs	3,231,000	2,000,000	6,800,000
50pcs	4,780,000	3,500,000	10,500,000
100pcs	9,520,000	7,000,000	21,000,000

여만원이나 주고 구입했다. 광주시 광산구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그녀는 돈이 없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사체를 빌리기도 했다. 하지만 나씨 일당은 이런저런 핑계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강씨는 매일 이자만 100여만원을 내야 하는 빚더미에 앉게 됐다.

◇**국민연금 환급 사기**=나씨 등은 지난 10월 10일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오모(여·22)씨의 집을 찾아가 이번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을 사칭했다. 이들은 "정부의 최근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 중 15~25%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오씨를 속였다. 또 "환급을 받으려면 100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한데

계좌로 이체하면 된다"며 계좌번호를 가르쳐 왔다. 오씨는 다음날 돈을 송금했지만, 이후 나씨 등은 연락을 끊었다.

나씨 등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은행에서 인출할 때는 CCTV에 찍힐 것을 우려해 다방 여종업원을 시키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세금·건강보험료 환급 사기**=나씨 등은 세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유혹하기도 했다. 쿠폰 환급 사기를 당한 강모씨는 나씨 등에게 "지난 2004년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지 않아 20여만원의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며 "쿠폰을 구입하면 세금도 즉시 되돌려 준다"고 했다. 이 밖에 서울 등에서는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전남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3건에 3천700여만원의 환급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통한 세금 환급은 어떤 경우에도 없다"면서 "환급이 필요하면 납세자가 세무서에 미리 신고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신고 계좌가 없으면 우체국을 통해 환급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평중선도지의 중심특권을 누리는데 3.636 최대단점!
평중선도지: 02-367-9000

"80년 5월 광주로 오세요"

첨단지구 '화려한 휴가' 세트장 공개

80년 당시 광주 급남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영화 '화려한 휴가'(감독 김지훈·제작 (주)기획시대) 세트장이 최근 일만에 공개됐다.

지난 6월 제작비 20억원을 들여 광주 첨단지구 과학기술원 뒤편에 제작된 이 세트장은 80년 광주 급남로의 모습을 80% 규모로 축소, 완벽하게 당시의 모습을 재현했다.

1만7천여평의 부지에 전남도청과 광주 YMCA 등 주요 건물은 물론 당시 시대상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소품도 함께 전시됐다.

특히 영화 촬영에 사용됐던 탱크와 장갑차, 버스, 포니 택시 등 소품도 전시돼 산 교육장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다.

이 세트장은 지난 23일부터 일반에 무료로 공개돼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하루 200여명이 찾는 등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제작사를 통해 김경호 감독의 '진달래꽃' 등 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의 촬영 요청도 이어져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도 각광받고 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직권 남용 드라마 영상센터 건립"

광주지검, 황일봉 남구청장 기소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호)는 27일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건축물을 건립한 후 화재로 인해 구에 1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황일봉 남구청장을 직권 남용 및 관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불법건축물을 짓는데 협조한 남구문화원장 이모(67)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유에 처분하고 김모(38)씨 등 관계 공무원 10여명에 대해서는 각각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황 청장은 2004년 5월 개발제한구역 내인 광주시 남구 양과동 구 대촌초등학교 폐교시설에 '건물의 신·증축이 불가하다'는 주무 부서의 보고를 받고도 청장의 직권을 남용, 관내 지방문화원인 남구문화원 명의로 '광주드라마·영상센터'를 건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말대꾸 했다" 교장이 교사 폭행

'말대꾸 했다'는 등의 이유로 교장이 교사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전남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2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목포 특수학교에서 "한 여교사가 조희시군에 교장의 인격 모독 발언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뺨을 맞았다"는 민원이 접수돼 사실조사에 나섰다. 교사는 "지난 22일 직원조회 때 교장이 임용고시를 치른 여교사 C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해 동료 교사인 D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교장실로 불러 심한 욕설과 함께 뺨을 두 대 때렸다"고 주장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남평·영광·담양선

광역도로 3개 개통

28일 개통 예정인 서창~남평간 7.6km를 연결하는 남평선. 광주시는 이날 남평선을 비롯해 광산구 운수동~삼거리간 영광선(8.8km), 우치~태령간 담양선(7.3km) 등 광주·전남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3개 도로를 개통한다. 지난 2001년 착공된 이들 도로는 1천976억원이 투입됐으며 총연장 23.8km에 4~6차로로 확장됐다. 나주와 담양, 영광 등 시 외곽지역과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물류비 절감과 접근성 강화 등 효과가 예상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비자금 조성 혐의 검찰 조사 대기업 간부 자살 기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대기업 간부가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유출돼 밝혀졌다.

27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

후 4시50분께 여수시 소호동 야산에서 모 건설 여수현장사무소 유모(40) 과장이 음독 후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

다.

유씨는 현재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이날 새벽 집 근처에서 아내와 술을 마신 뒤 혼자 야산으로 올라가 자살을 시도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이날 초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비자금 조성 혐의로 2차례 조사를 받

으면서 일부 혐의가 인정됐으며,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기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0월 여수 산단에서 고급 휘발유 원료 제조 공정 현장소장을 맡으면서 하청업체 3~4곳으로부터 공사 편의 대가로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 건설 여수산단 현장소장 김모(51)씨를 구속했으며,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한예슬, 드라마 계약금 일부 반환"

상니팔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한씨 등은 스타엔터테인먼트측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스타엔터테인먼트측에 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편성이 무산된 이상, 출연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는 출연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타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한씨 등과 모 방송사 드라마에 출연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천200만~4천만원을 각각 지급했으나 드라마 편성이 무산되자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한씨 등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 /연합뉴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kr

Love is the best Medicine.

사람이 자연을 사랑한다지만...
오히려 자연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사람에게 무관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정성스레 쌓아올린 돌탑 앞에 작은 소원을 말해봅니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진 않지만
소원을 비는 정성만으로도 사랑을 주는것.
그것이 국제약품이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한약 일반의약품

◆ **키랄레** 정민액

키랄레는 키랄레산과 키랄레아민을 함유한 한약으로, 위산 과다, 위장 장애, 소화 불량, 식욕 부진, 위장 운동 장애, 위장 기능 장애, 위장 운동 장애 등을 개선합니다.

◆ **신도환** 정민액

신도환은 신도환산과 신도환아민을 함유한 한약으로, 위산 과다, 위장 장애, 소화 불량, 식욕 부진, 위장 운동 장애, 위장 기능 장애, 위장 운동 장애 등을 개선합니다.

◆ **키랄레** 정민액

키랄레는 키랄레산과 키랄레아민을 함유한 한약으로, 위산 과다, 위장 장애, 소화 불량, 식욕 부진, 위장 운동 장애, 위장 기능 장애, 위장 운동 장애 등을 개선합니다.

국제약품 24시간 전화: 050-022-2250 (주말·휴일) 정성스레 그대 사랑을
국제약품의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행복, 기쁨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